

## Session 22 God's Covenant with David: Humility & Zeal (2 Sam. 7-10) 제 22강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겸손 & 열심 (삼하 7-10장)

### I. REVIEW: DAVID'S EXTRAVAGANT COMMITMENT TO WORSHIP

복습: 다윗의 예배에 대한 넘치는 헌신

- A. The quality that best defines David as a man after God's heart is his extravagant *commitment to worship*. After he conquered Jerusalem, his first act recorded in the Scripture was epic—he brought the ark to Jerusalem and set singers and musicians before it to minister to the Lord (1 Chr. 15-16).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드린 **예배의 넘치는 헌신**에서 볼 수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 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그 앞에 세워 주를 섬기도록 했다 (대상 15-16장).

- B. David vowed to dedicate his life to finding a “*dwelling place*” for God (Ps. 132:5). His vow included living in extravagant devotion to seek the Lord with all his strength or resources (time, talents, treasures). This vow changed history. It is at the heart of the end-time worship movement.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처소**”를 찾는 데에 헌신하기로 서원했다 (시 132편). 그의 서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에 힘과 모든 자원 (시간, 재능, 보화 등)을 사용하는 넘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서원 역사를 바꿨다. 이 서원은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의 핵심이 된다.

<sup>1</sup>LORD, remember David...<sup>2</sup>how he...vowed to the Mighty One of Jacob: <sup>3</sup>“Surely I will not go into the chamber of my house, or go up to the comfort of my bed; <sup>4</sup>I will not give sleep to my eyes...<sup>5</sup>until I find a place for the LORD, a dwelling place for the Mighty One of Jacob.”  
(Ps. 132:1-5)

<sup>1</sup>여호와여 다윗을 ... 기억하소서 <sup>2</sup>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sup>3</sup>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 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sup>4</sup>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 <sup>5</sup>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 132:1-5)

### II. DAVID LONGED TO BUILD A HOUSE FOR THE LORD (2 SAM. 7:1-3)

주를 위한 집을 짓기를 갈망했던 다윗 (삼하 7:1-3)

- A. David longed to build a house (temple) for the ark after the Lord had given him rest from all of the enemies who had pursued him (7:1-3). Saul was dead, and the civil war within Israel was over. David had a short reprieve from being attacked and pursued by his enemies.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쫓던 적으로부터의 쉼을 그에게 주신 이후, 언약궤를 위한 집(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다 (7:1-3).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내전은 끝났다. 다윗은 적의 공격과 추격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sup>1</sup>Now it came to pass when the king was dwelling in his house, and the LORD had given him rest from all his enemies all around, <sup>2</sup>that the king said to Nathan the prophet, “See now, I dwell in a house of cedar,

*but the ark of God dwells inside tent curtains.”<sup>3</sup>Then Nathan said to the king, “Go, do all that is in your heart, for the LORD is with you.” (2 Sam. 7:1-3)*

<sup>1</sup>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sup>2</sup>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sup>3</sup>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삼하 7:1-3)

- B. After David came to throne, he continued to seek God with all of his heart. David had great success in his career without it weakening his spiritual life. He refused to be content with his past victories or with his position as king with honor, wealth, and security that came with it. He refused to draw back to a life of ease and leisure; rather, he lived to see God's glory manifested in his generation.

다윗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다. 다윗은 놀라운 업적을 거두면서도 영적인 삶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승리, 혹은 명예와 부와 안전이 보장되는 왕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 편안함과 여유로움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갔다.

### III. THE LORD'S PROMISE TO DAVID: TO ESTABLISH HIS HOUSE (2 SAM. 7:4-17)

다윗에 대한 주님의 약속: 그의 집을 세우주심 (삼하 7:4-17)

- A. The Lord spoke to Nathan saying that David was not to build the temple (7:4-7). The Lord promised to build David's house or royal dynasty (7:11). This was the most significant encounter in his life.

주님은 나단에게 다윗은 성전을 짓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7:4-7). 주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실 것을, 즉 그의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7:11). 이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sup>4</sup>But it happened that night tha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Nathan, saying, <sup>5</sup>“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Would you build a house for Me to dwell in? <sup>6</sup>For I have not dwelt in a house since the time that I brought the children of Israel up from Egypt...<sup>7</sup>have I ever spoken a word to anyone from the tribes of Israel...saying,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sup>11</sup>The LORD tells you that He will make you a house. (2 Sam. 7:4-11)*

<sup>4</sup>그 밤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5</sup>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sup>6</sup>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sup>7</sup>...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sup>11</sup>...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삼하 7:4-11)

- B.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David that would result in Messiah coming through his family line (Isa. 9:1-7; 11:1-16; 16:5; 55:3; Jer. 23:5-6; 30:8; 33:15-26; Ezek. 34:23-24; 37:24-25; Hos. 3:5; Amos 9:11; Zech. 12:7-8). Jesus as king will lead Israel to prosperity and blessing that lasts forever.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이를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다 (사 9:1-7; 11:1-16; 16:5; 55:3; 렘 23:5-6; 30:8; 33:15-26; 겔 34:23-24; 37:24-25; 호 3:5; 암 9:11; 스 12:7-8).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번영과 축복으로 이끄실 것이다.

- C. The Lord promised to establish David's royal dynasty forever through Messiah—Jesus (7:11-17).

주님은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7:11-17).

<sup>11</sup>...the LORD tells you that He will make you a house. <sup>12</sup>“When your days are fulfilled and you rest with your fathers, I will set up your seed after you...<sup>13</sup>He shall build a house for My name... <sup>14</sup>I will be his Father, and he shall be My son. If he commits iniquity, I will chasten him with the rod of men and with the blows of the sons of men. <sup>15</sup>But My mercy shall not depart from him... <sup>16</sup>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before you.” (2 Sam. 7:11-16)

<sup>11</sup> ...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sup>12</sup>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sup>13</sup>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 <sup>14</sup>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sup>15</sup> ... 내 은총을 ...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sup>16</sup>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1-16)

- D. David understood that one of his deepest longings and most important aspects of his life vision would not happen in his lifetime, yet he continued to labor diligently to prepare the next generation to walk in it. David did not complain or draw back in disappointment that his hopes were deferred.

다윗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 중의 하나와, 그의 삶의 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신의 생애에 성취되지 않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세대가 이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해나갔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불평하거나 실망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 E. ***I will chasten him***: The Lord promised to discipline David's son with the rod of men—using men to bring trouble to his life and kingdom including men within Israel and enemies outside of the land.

내가 그를 징계하려니와: 주님은 다윗의 아들을 사람의 매로 징계하실 것을, 즉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과 나라 가운데 어려움을 주심으로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sup>14</sup>Now the LORD raised up an adversary against Solomon, Hadad the Edomite...<sup>23</sup>God raised up another adversary against him, Rezon...<sup>25</sup>He was an adversary of Israel all the days of Solomon ...<sup>26</sup>Then Solomon's servant, Jeroboam...also rebelled against the king. (1 Kgs. 11:14-26)

<sup>14</sup>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 <sup>23</sup>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 <sup>25</sup>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sup>26</sup>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 (왕상 11:14-26)

- F. David was overwhelmed by God's promise to him and responded in humility and faith (7:18-20).

다윗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압도되었으며,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했다 (7:18-20).

<sup>18</sup>King David went in and sat before the LORD; and he said: “Who am I, O Lord GOD? And what is my house, that You have brought me this far?” <sup>19</sup>And yet this was a small thing in Your sight, O Lord GOD; and You have also spoken of Your servant's house for a great while to come...” (2 Sam. 7:18-19)

<sup>18</sup>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sup>19</sup>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 (삼하 7:18-19)

- G. David responded in bold faith asking the Lord to fulfill the promise that He made to him (7:25-29).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를 구했다 (7:25-29).

<sup>25</sup>*“O LORD God, the word which You have spoken...establish it forever and do as You have said. <sup>26</sup>So let Your name be magnified forever...and let the house of Your servant David be established before You. <sup>27</sup>For You, O LORD of hosts...have revealed this to Your servant, saying, ‘I will build you a house.’ Therefore Your servant has found it in his heart to pray this prayer to You.* (2 Sam. 7:25-27)

<sup>25</sup>여호와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 <sup>26</sup>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시며 ...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sup>27</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삼하 7:25-27)

- H. David honored God by believing His promises and then turning them into prayer (7:26). The very heart of prayer is to speak God's promises back to Him in holy, believing, persevering prayer asking for their fulfillment. It honors God when we believe what He says to us (Rom. 4:20).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며, 이를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을 높였다 (7:26).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분께 다시 거룩한 믿음과 인내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이는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

<sup>20</sup>*He [Abraham] did not waver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engthened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sup>21</sup>and being fully convinc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lso able to perform.* (Rom. 4:20-21)

<sup>20</sup>[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sup>21</sup>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0-21)

- I. John the Baptist's father, Zacharias, became mute because he doubted Gabriel's promise. Mary's faith in God to do what seemed impossible honored the Lord (Lk. 1:37-38).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약속을 의심한 것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행하실 것이라는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을 높이는 일이었다 (눅 1:37-38).

<sup>19</sup>*And the angel [Gabriel] answered and said to him [Zacharias]...<sup>20</sup>Behold, you will be mute and not 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ese things take place,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sup>34</sup>Mary said to the angel...<sup>37</sup>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sup>38</sup>Behold the maid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Lk. 1:19-20, 37-38)*

<sup>19</sup>천사[가브리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사가라]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sup>20</sup>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 <sup>34</sup>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 <sup>37</sup>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sup>38</sup>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눅 1:19-20, 37-38)

#### IV. THE LORD GAVE DAVID VICTORY OVER ALL OF HIS ENEMIES (2 SAM. 8:1-14)

주님이 다윗에게 그의 모든 적들에 대한 승리를 주심 (삼하 8:1-14)

- A. After David's success and prosperity (2 Sam. 5-7), he continued to diligently seek the Lord and the increase of His kingdom. The Philistines were the greatest threat to Israel's national security. They were still aggressors against David (5:17-22). David sought to increase the kingdom of Israel against the Philistines to the west, the Moabites to the east, and the Zobahites to the northeast.

다윗이 성공과 번영을 이룩한 이후에 (삼하 5-7장),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성실하게 구하며 그의 왕국을 넓혀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다 (5:17-22).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대적하며, 동쪽으로는 모압을, 북쪽으로는 소바인들을 맞서서 이스라엘 국가를 넓혀나갔다.

<sup>1</sup>After this it came to pass that David attacked the Philistines and subdued them...<sup>2</sup>Then he defeated Moab...<sup>3</sup>David also defeated Hadadezer the son of Rehob, king of Zobah, as he went to recover his territory at the River Euphrates. (2 Sam. 8:1-3)

<sup>1</sup>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 <sup>2</sup>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 <sup>3</sup>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삼하 8:1-3)

- B. After serving for many years in a very successful ministry, Paul refused to draw back. He continued to press on, seeking to increase the kingdom and to completely fulfill his ministry assignment.

바울을 수년 간의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섬긴 이후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것과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해나가는 일을 계속했다.

<sup>22</sup>And see, now I go bound in the spirit to Jerusalem, not knowing the things that will happen to me there, <sup>23</sup>except that the Holy Spirit testifies in every city, saying that chains and tribulations await me. <sup>24</sup>But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nor do I count my life dear to myself, so that I may finish my race with joy, and the ministry which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Acts 20:22-24)

<sup>22</sup>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sup>23</sup>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sup>24</sup>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2-24)

<sup>12</sup>“...but I press on, that I may lay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has also laid hold of me. <sup>13</sup>Brethren...one thing I do,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those things which are ahead, <sup>14</sup>I press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Phil. 3:12-14)

<sup>12</sup>...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sup>13</sup>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sup>14</sup>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 C. David engaged in many battles and recognized the Lord as the source of his victories, wealth, and honor; therefore, he dedicated his money to honor God and see increase in His kingdom (8:11-12).

다윗은 많은 전투에 임했고, 그는 주님이 그의 승리와 부와 명예의 근원인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것에 헌신했다 (8:11-12).

<sup>11</sup> King David dedicated these to the LORD, along with the silver and gold that he had dedicated from all the nations which he had subdued—<sup>12</sup>from Syria, from Moab, from the people of Ammon, from the Philistines, from Amalek, and from the spoil of Hadadezer... (2 Sam. 8:11-12)

<sup>11</sup>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sup>12</sup>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오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삼하 8:11-12)

## V. DAVID'S KINDNESS TO JONATHAN AND MEPHIBOSHETH (2 SAM. 9:1-13)

요나단과 므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자비

- A. This episode in David's life is one of most moving pictures of Jesus as the greater son of David. King David is a type of Christ the King of kings and the gospel truths that magnify God's greatness.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서 더 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이다.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 B. David faithfully sought to show kindness to Jonathan's house, keeping his promise to him (1 Sam. 18:3; 20:42; 23:18; 24:21-22). With his throne established and the civil war in Israel over, David was in position to keep his oath to Jonathan. As king, no one could force David to be faithful.

다윗은 요나단의 집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요나단의 집에 자비를 베푸는 일을 충성되게 행했다 (삼상 18:3; 20:42; 23:18; 24:21-22).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확고해지고 이스라엘의 내전이 끝나게 되면서, 요나단에 대한 자신의 맹세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그가 충성될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sup>3</sup>The king said, "Is there not still someone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may show the kindness of God?" And Ziba said... "There is still a son of Jonathan who is lame in his feet."... <sup>6</sup>Now when Mephibosheth the son of Jonathan... had come to David, he fell on his face and prostrated himself. Then David said, "Mephibosheth?"... <sup>7</sup>David said to him, "Do not fear, for I will surely show you kindness for Jonathan your father's sake, and will restore to you all the land of Saul your grandfather; and you shall eat bread at my table continually." (2 Sam. 9:3-7)

<sup>3</sup>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sup>6</sup>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 <sup>7</sup>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삼하 9:3-7)

- C. **Restore all the land:** David restored to Mephibosheth all the land that belonged to Saul (9:7).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다윗은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땅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었다 (9:7).

## VI. DAVID'S KINDNESS TO AND VICTORY OVER THE AMMONITES (2 SAM. 10:1-19)

암몬 족속에 대한 다윗의 자비, 그리고 승리 (삼하 10:1-19)

- A. In 2 Samuel 9, David showed kindness to an Israelite; in 2 Samuel 10 he showed kindness to an Ammonite (a type of unbeliever). Both chapters are spiritual pictures of the grace of God. The kindness of Jesus the king is offered in the gospel to everyone (Mt. 28:19; Mk. 16:15). David's mistreated servants picture the many ambassadors of Jesus who is the Son of David.

다윗은 삼하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었으며, 삼하 10장에서는 암몬 족속(믿지 않는 자들의 모형)에게 자비를 베풀다. 이 두 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왕이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복음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났다 (마 28:19; 막 16:15). 다윗이 보냈던 신하들이 홀대를 받은 일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나타낸다.

- B. After David fulfilled his commitment to Jonathan, he sought to show kindness to Hanun, the Ammonite prince whose father, Nahash, king of the Ammonites, had died (10:1-2).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그의 약속을 지킨 이후에, 죽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 왕자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 (10:1-2).

<sup>1</sup>*It happened after this that the king of the people of Ammon died, and Hanun his son reigned in his place. <sup>2</sup>Then David said, "I will show kindness to Hanun the son of Nahash, as his father showed kindness to me." So David sent by the hand of his servants to comfort him concerning his father. And David's servants came into the land of the people of Ammon. (2 Sam. 10:1-2)*

<sup>1</sup>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sup>2</sup>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삼하 10:1-2)

- C. The Ammonites had accepted Israel as more powerful nation in the region. Out of respect for the passing of a head of state with whom David had a treaty, he sent a delegation to express sympathy.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서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었다. 다윗은 조약 관계에 있던 나라의 수장의 죽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애도를 표하는 대사를 보냈다.

- D. David's official delegation was rejected by the Ammonite leaders (10:3-5). They thought that David was sending spies to gain information to overthrow their city, so they insulted David's men. Their actions were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David. The remainder of the chapter records the fighting.

암몬 자손들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보낸 공식 대표단을 거부했다 (10:3-5).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도시를 함락시킬 목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스파이들을 보냈다고 생각해서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다윗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행동이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로 인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sup>3</sup>And the princes of the people of Ammon said to Hanun their lord, “Do you think that David really honors your father...? Has David not rather sent his servants to you to search the city, to spy it out, and to overthrow it?” <sup>4</sup>Therefore Hanun took David’s servants, shaved off half of their beards, cut off their garments in the middle, at their buttocks, and sent them away. <sup>5</sup>When they told David, he sent to meet them, because the men were greatly ashamed. And the king said, “Wait at Jericho until your beards have grown, and then return.” (2 Sam. 10:3-5)

<sup>3</sup>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이까 하니 <sup>4</sup>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sup>5</sup>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삼하 10:3-5)

- E. We see David’s sensitivity for the honor of his soldiers. He took care of his men before tending to the Ammonites, encouraging them to stay at Jericho, the first Israelite settlement west of the Jordan on the main road back to Jerusalem, until their beards had grown back.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의 명예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암몬 자손들을 처리하기 전에 자신의 부하들을 먼저 돌보았으며, 그는 그들의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주요 도로에 있는 요단 서안 지구에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인들의 정착지인 여리고에 머물도록 격려했다.

- F. The Ammonites hired the Syrians to help them fight David (10:15-19). David was victorious over them, causing Israel’s influence to reach to the lands north of Damascus. Thus he gained more revenue and took control over the two main trade routes—Via Maris and the King’s Highway.

이 암몬 자손들은 다윗과 싸우기 위해 앓수르인들을 고용했다 (10:15-19). 다윗은 그들에게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다메섹 북쪽까지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두 개의 주요 교역로(비아 마리스, 왕의 대로)를 장악하게 되었다.

<sup>17</sup>...the Syrians set themselves in battle array against David...<sup>18</sup>Then the Syrians fled before Israel; and David killed seven hundred charioteers and forty thousand [40,000] horsemen of the Syrians...<sup>19</sup>And when all the kings who were servants to Hadadezer saw that they were defeated by Israel, they made peace with Israel and served them. So the Syrians were afraid to help the people of Ammon anymore. (2 Sam. 10:17-19)

<sup>17</sup>...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sup>18</sup>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대와 마병 사만 명[40,000]을 죽이고 ... <sup>19</sup>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삼하 10:17-19)